

낙화유수런가

글·나경수 편집위원장
(사)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 교육홍보부장

물, 그밖의 유체에 에너지를 주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또는 저압인 곳에서부터 고압인 곳으로 연속적으로 보내는 기계가 펌프(pump)다. 우리 말로는 양수기(揚水器)라고도 한다.

터보형 펌프는 임펠러(impeller)의 회전에 의하여 유체에 압력과 운동에너지를 주는 펌프이며, 가장 응용범위가 넓어서 펌프라고 하면 대개 터보형 펌프를 가리킨다. 볼류트(volute : 소용돌이꼴) 펌프 및 터빈펌프와 같은 원심펌프·사류(斜流)펌프·축류(軸流)펌프·와류(渦流)펌프가 이에 포함된다.

용적형 펌프는 유체의 부피변화에 의하여 압력에너지를 주는 펌프이며, 피스톤 펌프·플런저(plunger)펌프·기어펌프·나사선 펌프·베인(vein)펌프 등이 있다. 기포(氣泡)펌프는 양단을 개방한 긴 관(管)을 액 속에 세우고 관의 밑쪽에서 압축공기를 불어 넣으면 관 속에 기포가 생겨 기포의 상승과 함께 액도 상승하여 빨아 올릴 수 있다. 밸브(valve)도 없는 단순한 구조이므로 고장도 적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되고 있는 전기제품이 소형가전이다. 국산제품이 많이 밀려나고 그 자리에 수입된 가전이 차지하고 있

다. 외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차츰 그리고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현재로서도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모발건조기, 소형진공청소기, 토스터, 믹서류(類), 커피메이커 그리고 이제 밥솥까지도 대표적이다.

이렇게 수입품에 밀려서 어떤 제품은 국산의 대(代)가 끊길 정도에 와 있는 것도 있다. 슬프게도, 커피메이커는 제대로 국산이 안방을 차지하기도 전에 수입품이 밀려드는 바람에 뒤에 쳐져서 완전히 이 땅에서 밀려나 들어서지를 못하고 있다. 슬픈 일이다. 수입상이 이미 50여 개나 되어, 국산이 회생할 여지나 희망은 거의 없다. 이러한 와중에 펌프수입도 만만치 않아 국산품을 크게 위협하여 수난을 겪고 있다.

펌프수차(水車)는 양수식(揚水式)발전소에서 하부 저수지로부터 상부 저수지로 물을 퍼올리는 펌프와 위에서 밑으로 물을 흘러내서 동력을 얻는 수차를 한 대로 겸용한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전동기와 발전기가 겸용된 것이다.

프란시스형·사류형(斜流型)·프로펠러형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전기제품 대부분이 소형가전이다.

국산제품이 많이 밀려나고 그 자리에 수입된 가전이 차지하고 있다.

외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차츰 그리고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모발건조기, 소형진공청소기, 토스터, 믹서류(類),

커피메이커 그리고 이제 밥솥 따위가 대표적이다.

펌프수입도 만만치 않아 국산품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있고, 외견상으로는 수차의 구조와 비슷하지만 양자의 성능이 조화되도록 사전에 고려되어 있다. 사용하는 양정(揚程)과 낙차의 크기는 대응하는 형식의 수차의 낙차(落差)보다 약간 작다.

펌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미국의 루즈벨트(F. D. Roosevelt)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위해 공익토목사업을 시행한 데서 유래한 <펌프의 마중물식의 경기회복책>이 펌프프라이밍(pump priming)이다. 우리말로로는 유수정책(誘水政策 : pump-priming policy)라고 하는데, 경제가 그 자체의 힘으로 경기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정부가 공공투자의 형태로 자금을 투입하여 경기회복을 꾀하는 일을 지칭한다. 번역된 말 그대로는, 물(水)을 유도하여 끌어들이는 것이다. 즉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사업 등을 펼쳐 회복의 돌파구를 만들어 그것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은 1930년대의 불황기에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불황이 심화되어 공공투자를 하더라도 경제가 자동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때 계속적으로 공공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보정적 지출정책(補整的支出政策)이라 한다. 이러한 보정적 지출정책은 유수정책과는 물론 구별된다.

또한 통화가치(通貨價値)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가의 변동에 따라 금(金)의 중량을 변화시켜 일정한 구매력(購買力)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를 보정달러(補整 dollar)라 하는데, 역시 1930년대 미국의 불황기에 피셔(I. Fisher)나 워런(G. E. Warren)이 주장한 개념이었다.

Prime은 원래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것으로 보일러의 수분유출(誘出)도 의미한다. 여하튼 소형가전은 물론 펌프도 수입품에 밀려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자꾸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마중물도 필요하니 유수(誘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사지경(幾死之境)에 놓인 우리의 가전산업을 기사회생(起死回生)시켜야겠다. 우리의 중소기업제조업체는 지금이야 말로 기사회생반(起死回生飯)이 필요할 때다. 중병치른 사람에게 먹이를 주듯 생쌀을 자루에 담아 설렁탕 가마속에 넣어서 끓인 밥을 말이다.